

제 315호 · 2015년 7월 1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인도, 카보타지(Cabotage)법 개정 검토 중
2. 올 8~9월 극동 러시아 코즈미노항 확장공사 완공, 수에즈막스 입출항 가능
3. DHL, 현수준의 콜드체인으로 의료부문 수요에 대응불가
4. Swiss Post, 무인 항공기 드론의 상업화 테스트 착수

물류시장동향

1. 상반기 러시아 항만 물동량 작년대비 3.5% 증가
2. 미국 UPS, 아부다비에 택배분류시설 확충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인도, 카보타지(Cabotage)법 개정 검토 중

- 인도 정부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소유 선박이 인도동부에서 연안화물을 운송 할 수 있도록 카보타지 법 개정을 검토 중임
 - 인도 정부는 해당 법 개정으로 인도 동부연안의 컨테이너 물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부연안의 화물적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간선항로 화물은 인도 서부에, 환적화물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7~12월 간 인도 서부항만은 415만 TEU화물을 처리하였고 같은 기간 동부항만은 135만 TEU의 화물을 처리함
- 카보타지법의 완화는 외국항만에서의 환적의존도를 줄이고자 인도 정부가 오랫동안 고 민해오던 정책임¹⁾
 - 인도 해운부 연안운송국의 잠정보고서에서는 동부연안의 수출입 컨테이너 및 공컨테이너 화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카보타지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현재 인도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해 보면, 80%의 화물은 바로 간선항로를 통해 운송 하나, 20%는 스리랑카 콜롬보, 싱가포르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제벨알리 등 인근 허브항만에서 환적되고 있음
 - 외국국적 선박의 인도 항만 간 화물 운송 허가 시, 인도 인근 허브항만에서 환적 하는 대신 인도 동부연안에서 환적 시 운송비용 및 시간 단축되며, 이는 컨테이너 화물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역운송 및 무역업자들은 공급사슬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카보타지법을 완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도선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음
 - 인도 선주들은 카보타지 법이 완화되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선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일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인도의 컨테이너선사연합(Container Shipping Lines' Association of India)은 카보타지법안이 완화된다면 최종 고객의 물류비 부담은 40~45%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인도 무역에 연간 1억 USD에 달하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는 카보타지법 완화시, 국내 선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 항만간 운송을 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적컨은 TEU 당 50USD, 공컨은 TEU 당 25USD의 연안차별요금(Costal Differential Fee)을 부과할 계획임

자료 : www.joc.com, 2015.07.13.

전형모 전문연구원 (☎ 051-797-4683, hmjeon@kmi.re.kr)

1) 국제물류위클리 262호

□ 올 8~9월 극동 러시아 코즈미노항 확장공사 완공, 수에즈막스 입출항 가능

- 극동 러시아 최대의 석유타미널이자 동시베리아 석유의 동북아 수출 허브항인 코즈미노항 석유타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코즈미노 항에 기존의 아프라막스급보다 1/3이 더 큰 수에즈막스(Suezmax)급 유조선 입출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코즈미노항은 2012년 말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건설 2단계 공사(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가 완료됨에 따라 개항된 항만임 (아래 <그림> 참조)
 - * ESPO 송유관은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타이세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동북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가설된 총 연장 4,739km의 송유관으로, 2009년 12월 타이세트-스코보로디노 간 2,694km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된 데 이어, 2012년 12월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간 2,045km의 2단계 공사를 완료함
 - * ESPO 송유관은 이 외에도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유전지대이자 석유화학 중심지인 다칭으로 이어지는 길이 1,056km의 지선을 통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함
 - ESPO 2단계 송유관 완공 이전까지는 수에즈막스가 코즈미노로부터 석유를 수송했으나, 코즈미노 석유타미널 공사에 따른 선적 공간 축소로 이후 아프라막스급만 입출항해왔음
 - * 아프라막스(Aframax): 벌크선 선형(shipsize)의 하나.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Afra) Maximum의 줄임말. 운임 및 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사이즈란 뜻으로, 통상 9,5000 DWT급의 선박을 지칭함
 - * 수에즈막스(Suezmax): 벌크선 선형의 하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으로 통상 135,000~150,000 DWT의 선박을 지칭함
- 클락슨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라막스급의 코즈미노 입항 척수는 2012년 73척에서 2014년 119척으로 2012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코즈미노에서 출발한 원유는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됨
 - 한편 해당 항로에서 아프라막스를 운영 중인 화주들은 BP, 조디악 그룹, 상하이북해선무(Shanghai North Sea Shipping Co.) 등임
 - * 화주들은 British Mallard호, Aries Sun호, BeiHai Ming Wang호 등의 아프라막스급 선박을 용선하여 운영 중임
- 코즈미노 석유타미널 확장으로 대형 유조선에 의한 석유수송 능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러시아 석유 교역이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은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015년 러시아 석유생산이 일일 10만 배럴(bpd)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반면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제재에 맞서 오히려 석유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음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노선 >



자료 : 중앙일보, 2012. 12. 26.

< 코즈미노 석유타미널 >



자료 : en.portnews.ru

- 한편 미국의 에너지 회사 셰브론(Chevron)이 최근 코즈미노 항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10만 톤을 수송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해운물류 및 관광 재벌 샤라프 그룹으로부터 '두바이 글래머호'를 임대, 코즈미노 항에서 원유 10만 톤을 선적해 미국 서해안으로 수송할 예정임

자료 : www.lloydlist.com, 2015.7.9.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 DHL, 현수준의 콜드체인으로 의료부문 수요에 대응불가

- DHL Global Forwarding은 최근 발간한 백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문 의약품의 글로벌 운송에 따른 당면 문제를 조명했음
 - DHL 그룹의 Frank Appel 대표이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산업으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가 증가했음
 - 추가적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투약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리스크 사이의 복잡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것은 무역과 물류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부문에 대한 지출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전체 지출의 1/3이 신형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문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PwC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시장의 성장률이 전 세계 보다 약 4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의약품 운송은 항공운송업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영역으로, 수익성 높은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은 높지만 시장성이 높은 분야임
- 신형시장에서 의료부문 운송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엄격한 관리규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콜드체인이 필요함
 - DHL의 생명과학 및 의료부문 대표인 Angelos Orfanos씨에 따르면 의약품 운송으로 오랫동안 회사의 평판이 손상되었고, 매출 감소를 비롯하여 심지어 환자들에게도 리스크가 노출됐음
 -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높이고 공급망 구성을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상된 물류가 더 좋은 의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 DHL 백서에 따르면, 생명과학 및 의료관련 회사들이 글로벌 운송과정에서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제품의 무결성(integrity)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발전된 콜드체인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저자인 Lisa Harrington 연구원은 의료 제품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와 의료부문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적절한 파트너 물류업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음
- 높은 수준의 콜드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기술 차원에서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DHL의 생명과학 및 의료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Nigel Wing씨는 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패키지로는 운송에 필요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함
 - 콜드체인을 위한 고도의 전문화와 호환성 높은 물류네트워크, 적절한 공정과 운영인력은 필수요소로, 특히 신형시장에서 전문지식과 정밀성이 요구되나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임

자료 : www.dhl.com, 2015.6.22.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 Swiss Post, 무인 항공기 드론의 상업화 테스트 착수

- Swiss Post는 Swiss WorldCargo, Matternet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 항공기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음
 - 스위스 우편 서비스 전문업체 Swiss Post와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스위스 국제항공)의 항공화물 부문 자회사인 Swiss WorldCargo,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무인 항공기 제조 전문 기업인 Matternet 등 세 회사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중임
- 이 회사들은 무인 항공기 드론의 물류 분야 적용을 위한 타당성 및 비용 효율성 검증을 위해 7월 말까지 스위스 전역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테스트 중인 드론은 1회 충전으로 최대 중량 1kg의 화물을 최대 10km까지 수송할 수 있음
- Swiss Post의 드론 개발 관계자는 "드론의 물류분야 활용을 위해 기술적인 제약 등 광범위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또한 "알프스산맥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7.8.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상반기 러시아 항만 물동량 작년대비 3.5% 증가

- 2015년 1-6월까지 러시아의 항만 물동량이 322백만 톤에 달했음
 - 이는 작년대비 3.5% 증가한 것임
 - 건화물은 0.2% 감소한 138백만 톤인 반면, 액체화물은 6% 증가한 183백만 톤임
- 지역별 항만 총 물동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북극해지역의 항만 총 물동량은 0.6% 감소한 17백만 톤으로, 건화물은 7.1% 감소한 11백만 톤, 액체화물은 16% 증가한 5백만 톤임
 - 발틱해지역의 항만 총 물동량은 2.3% 증가한 113백만 톤으로, 건화물은 3.1% 감소한 45백만 톤, 액체화물은 6% 증가한 71백만 톤임
 - 아조프-흑해지역의 항만 총 물동량은 6.7% 증가한 105백만 톤으로, 건화물은 9% 증가한 36백만 톤, 액체화물은 6% 증가한 68백만 톤임
 - 카스피해지역의 항만 총 물동량은 7.3% 감소한 3백만 톤으로, 건화물은 11% 증가한 1백만 톤이고 액체화물은 18.3% 감소한 2백만 톤임
 - 극동지역의 항만 총 물동량은 2.7% 증가한 82백만 톤으로, 건화물은 2.5 감소한 46백만 톤이고 액체화물은 11% 증가한 36백만 톤임

자료 : www.portnews.ru 2015.07.10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i@kmi.re.kr)

□ 미국 UPS, 아부다비에 택배분류시설 확충

- 미국 택배회사인 UPS는 기존 분류 용량의 세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아부다비에 개설했음
 - 분류 능력을 확대한 UPS는 아부다비의 고객들을 위해 더 빠른 운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됨
 - 또한, UPS의 빠른 수송을 통해 인도 및 중앙아시아로 필요한 택배화물을 다음 영업일까지 배송할 수 있음
 - UPS의 UAE 지점장인 Rachid Fergati씨는 “아부다비 시설 확충은 UAE 및 해당 지역 고객들이 세계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 투자한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 bmo.bmireseach.com/home, 2015.7.7.

김민경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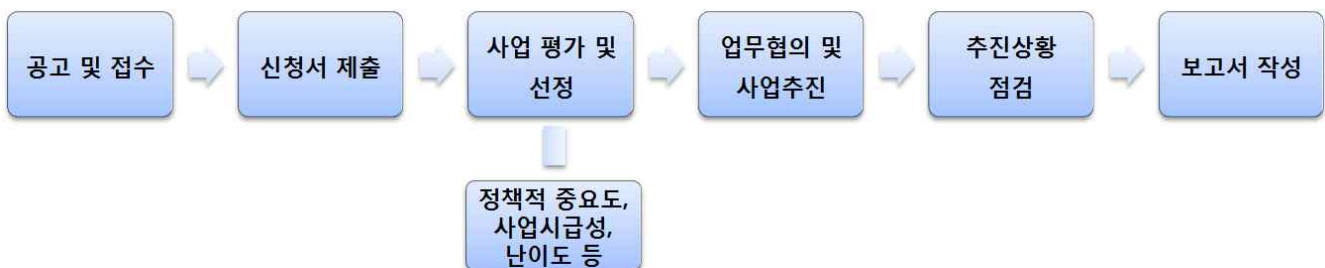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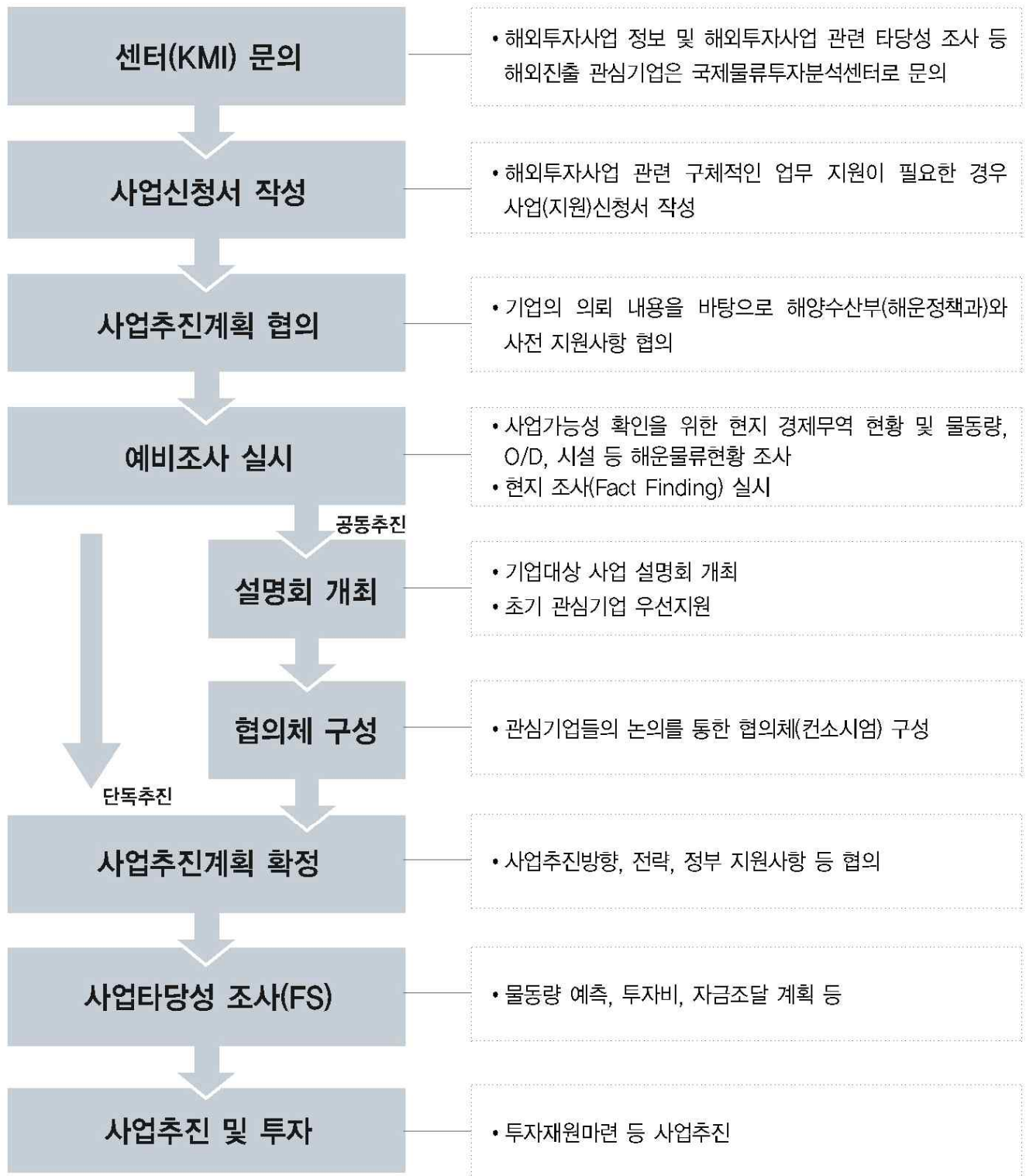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